

하시모토, 구마모토, 임진왜란



권성하
대전일보 정치행정부
차장

1년 전 일이다. 지인으로부터 일본의 분권 논의를 듣다 보니 흥미로운 사람이 있었다. 하시모토 토루(橋下 徹) 오사카부 전 지사였다. 그는 현 오사카 시 시장이며 일본 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이다. 차기 총리 감으로 거론될 정도다.

하시모토는 꽤 재미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사실 그는 일본 정계의 엘리트가 아니다. 부락민(部落民·일본 최하위 계층) 마을에서 유소년기를 보냈고, 야쿠자였던 아버지는 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스관을 입에 물고 자살했다고 한다. 그가 주목받게 된 것은 변호사 시절 한국의 '솔로몬의 선택' 같은 법률상담을 하는 예능 코너에 출연하면서다. 거침없는 입담과 명쾌한 진행으로 인기를 모았고, 지난 2008년 최연소인 38세에 오사카부 지사로 당선되며 화제를 모았다. 하시모토는 당선 직후 개혁을 추진한다. 공무원 임금과 각종 단체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오사카부를 2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키며 능력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1969년생이니 이제 마흔 둘이다.

지인을 통해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의 오사카 개혁이 일본 개혁으로 진화하고, 그가 만든 '유신정치숙(塾)'에 수 천 명이 몰린 이유가 궁금했다. 무엇보다 그의 '유신팔책(維新八策)'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다.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사카모토 료마의 '선중팔책(船中八策)'의 21세기 버전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마침 충남도는 안희정 지사가 분권 혁신을 주창할 때였고, 하시모토의 유신팔책에 '도주제(道州制) 도입'과 '소비세를 지방세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 폐지'가 눈에 들어 온 탓도 있었다. 실제로 1도(都), 1도(道), 2부(府), 43개 현(縣)을 몇 개의 도주로 광역화하려는 것은 민선 5기 안 지사의 분권혁신, 충남과 대전, 충북을 묶는 500만 분권 거버넌스와의 유사했다.

하시모토는 지방 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의 하청관계를 청산하고, 자립 경영

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민당을 뛰쳐나와 '오사카유신회'라는 지방 정당을 만들었다.

그의 과단성에 끌렸다. 하지만 호감은 딱 거기까지였다. 그를 알아 갈수록 묘했다. 하시모토는 천황제 폐지와 연결될 수 있는 참의원 제도 폐지와 수상 공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마치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목표로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곳곳에서 모순을 드러냈다. 각급 학교에서 기미가요를 찬양하고, 교사의 전원 기립, 전원 제창을 의무로 하는 '기미가요 조례' 역시 그의 작품이다.

사전 인터뷰 내용에 '기미가요가 천황 만세 노래인데 당신이 정말로 천황제를 폐지하자고 한 장본인이 맞는가?'라는 질문지를 답아 보냈다. 인터뷰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를 다시 접한 건 지난 8월 21일이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하시모토가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놔야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의 망언은 중군위안소 설치·관리에 옛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고노담화'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하시모토의 오사카유신회가 총선용으로 내 건 공약은 한 술 더 떴다. 안전보장 분야에서 일본의 주권과 영토를 자력으로 수호하는 방위력과 정책의 정비를 명시했고, 전쟁 포기와 교전권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헌법 9조)의 개정을 쉽게 하기 위해 헌법개정 발의 요건인 의원 정수의 '3분의 2'를 '2분의 1'로 완화했다. 오사카유신회가 내 건 공약의 토대는 하시모토의 유신팔책이

다. 재미난 점은 유신팔책의 원전이라고 할 선종팔책이 첫 일성에서 '천황에게 막부의 통치권을 반납'토록 했다는 점이다. 료마의 선종팔책은 1867년 11월 9일 도쿠가와 막부 15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메이지 일왕에게 통치권을 반납하는 대정봉환(大政奉還)으로 이어지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과 함께 제국주의의 길을 간다. 이후 역사는 한국에게 비극이 됐다.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과거사 부정 등 일본의 우경화는 이제 비켜 갈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됐다.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에서 읽을 수 있듯 일본의 우경화는 중앙과 지방이 결코 다르지 않다.

충남도와 29년 우정을 쌓았다고 믿었던 구마모토현도 마찬가지다. 구마모토 소재 3개 중학교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를 부교재로 채택했고, 구마모토현은 이들 학교의 부교재 구입 예산을 지원했다. 충남도가 공식적인 항의와 함께 불채택을 주문했지만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다"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하시모토와 오사카유신회는 그들의 정치스쿨인 '유신정치숙'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400명을 출마시킨다는 구상을 밝혔다. 제2, 제3의 하시모토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가 임진년이다. 420년 만에 왜(倭)가 다시 준동하고 있다. 문득, 하시모토와 구마모토현이 캐그콘서트의 '가루상'과 오버랩된다. "사람이 아니무니다. 대답이 아니무니다."